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이양호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신화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은주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 논문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정학적 원인 혹은 종족 분절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더욱이 종족 분절성은 반드시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전이 이 지역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장기화되거나 재발하거나 인도적 위기상황을 불러오는 내전은 정치적 관리(governance)의 실패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불안정한 신생 민주주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화 이후 소수의 이익도 포함하는 다원적 민주제도로써 다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에서의 권력공유는 많은 경우 안정적이지 못하고 연합정권으로 타락하거나 일당제로 퇴보하였다. 또한 권력공유는 엘리트간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패와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권력공유의 특징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주제어: 불평등, 빈곤, 내전, 권력공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026).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I. 서 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으려는 주장에는 “흑인의 짐(Black Man’s Burden)”이 있다(Bigman 2011, 32). “흑인의 짐”의 주장은 서구열강들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분할하면서 종족이나 종교를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경선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집단 간 갈등과 반목 그리고 박탈, 차별, 착취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콜리어(Collier, 2007)는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이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함정(trap)에 갇혀있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갈등 함정, 자원 함정, 내륙 함정, 실정(bad governance)함정이라는 네 개의 유형이 있다. 그는 아프리카 저개발국들이 이들 함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덫에 빠져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콜리어는 이 함정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 저개발국들이 새로운 외적 요인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직면해 새로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빅맨(Bigman)도 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2007~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재건이 늦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Bigman, 2011: 40).

하지만, 광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지닌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괄목한 성장을 보였다. 2001~201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전 세계의 10개국에는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가나 등 6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되었다. 1990년대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2.2%였으나, 지난 10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05~2006년에는 4%, 2007년에는 6.6%를 기록하였다(Bigman, 2011: 35). 또한 아프리카는 2008~2009년 세

재금융위기, 2010년 유럽 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4~5%의 성장률을 보였다(박경덕, 2012). 특히 자원수출국 혹은 매년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전체 아프리카 인구의 27.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전반적인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Hope, 2008: 2), 이는 여전히 저개발, 사회갈등, 무력분쟁 등에 휩싸인 국가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국가들에 전체 아프리카 인구의 36.7%가 살고 있다(Bigman, 2011: 47).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요인과 종족간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단의 학자들은 지정학적 요인을 이 지역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Collier and O'Connell, 2008; Gallup et al., 1999; Ndulu and O'Connell, 2008; Sachs, 2005).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그 지정학적인 요인과 식민지 유산으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심각한 종족갈등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본다. 아프리카는 식민통치 시기에 식민 모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국경선이 설정됨으로써 동일 종족이 여러 국가로 흩어지거나, 한 국가에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종족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무력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Bigman, 2011; Oberschall, 2007).

본 논문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의 원인을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과 종족 분절성이라는 사회적 요인을 진단함과 더불어 두 주장의 적실성과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두 주장이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다른 원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정치제도이다. 아프리카의 체제관리에 실패한 정치제도는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정치제도의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러한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아프리카에서는 40개국 이상이 정기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다당제를 적용하고 있다(Bigman, 2011: 172; Southall, 2003: 12).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포괄성(inclusion)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정치제도는 분쟁과 갈등을 조절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기존 논의를 소개하고, 그 한계성을 지적한 이후에 대안적인 설명으로 정치제도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우선 II절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불평등과 빈곤의 배경을 제시하고,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의 현황을 검토한다. III절에서는 아프리카의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지정학적인 요소와 식민지 유산을 살펴본다. 이어 IV절에서는 아프리카의 종족 분절성의 현황을 살펴보고, 종족 분절이 이 지역의 빈곤이나 불평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V절에서는 신생 민주주의 아프리카의 정치제도를 점검해 보고, 이러한 정치제도가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절에서는 여론조사 연구기관인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의 2008년부터 2012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제도운용에 대한 평가 또한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차원에 대한 연구로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러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으며,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유사하고 동일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동일한 차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I.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현황

일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이 여전히 부족하다. 세계 총 인구의 13%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2000년대 초 세계 총 영양실조 인구의 33%가 살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아프리카는 그 수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Bigman, 2011: 42-43). 또한 아프리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물과 식수나 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Dulani et al., 2013).

〈표 1〉은 아프로바로미터(2010~2012) 자료의 문항 중 “지난 해 얼마나 자주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다음의 항목 없이 지냈는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나타낸다.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43,204명 중 의식주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많은 경우 없었다’ 혹은 ‘항상 없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음식 16%, 물 21%, 의료 19%, 요리용 연료 12%, 현금소득 44%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인구가 여전히 많다.

〈표 2〉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아프리카에 대한 2012년의 보고서에 나타난 아프리카 각 국가들의 빈곤인구 비율과 지니(Gini) 계수이다. 〈표 2〉

〈표 1〉 의식주 및 기본 생활에 대한 빈곤(%)

	음식	물	의료	연료	현금소득
없었던 적 없음	49	50	46	58	22
한두 번 없었음	15	12	15	14	11
여러 번 없었음	20	17	20	15	23
많은 경우 없었음	13	13	14	9	26
항상 없이 지냄	3	8	5	3	18
	100 (N=43,146)	100 (N=43,147)	100 (N=43,003)	100 (N=42,990)	100 (N=43,034)

자료: Afrobarometer 2010-2012, online analysis. 아프리카 31개 국가에서 “지난해 얼마나 자주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음식, 물, 의료, 연료, 현금소득) 없이 지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표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국가	빈곤 인구비율	Gini	국가	빈곤 인구비율	Gini
앙골라	54.3	58.6	라이베리아	83.7	38.2
베냉	47.3	38.6	마다가스카르	67.8	47.2
보츠와나	n/a	n/a	말라위	73.9	39
부르키나파소	56.5	39.6	모리타니	21.2	39
부룬디	81.3	33.3	모리셔스	n/a	n/a
카메룬	9.6	38.9	모잠비크	59.6	45.7
카보베르데	21	50.5	나미비아	n/a	n/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2.8	56.3	니제르	43.1	34
차드	61.9	39.8	나이지리아	64.4	42.9
코모로스	46.1	64.3	르완다	76.8	53.1
자이레	59.2	44.4	상투메프린시페	29.7	50.8
콩고	54.1	47.3	세네갈	33.5	39.2
코트디부아르	23.8	41.5	세이셸	30	65.8
적도기니	n/a	n/a	시에라리온	53.4	42.5
에리트레아	n/a	n/a	남아공	17.4	67.4
에티오피아	39	29.8	남수단	n/a	n/a
가봉	4.8	41.5	스와질란드	62.9	50.7
감비아	34.3	47.3	탄자니아	67.9	37.6
가나	30	42.8	토고	38.7	34.4
기니	43.3	39.4	우간다	37.7	44.3
기니비사우	48.8	35.5	잠비아	n/a	50.7
케냐	19.7	47.7	짐바브웨	n/a	n/a
레조토	43.4	52.5			

자료: UNDP(2012).

주: 빈곤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사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지니(Gini) 계수는 2000~2010년 의 자료이다.

에 의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미화 1.25달러(PPP 기준) 이하로 사는 인구가 2000~2009년 평균 47.5%에 달했다. 심지어 라이베리아는 83.7%, 부룬디는 81.3%, 그리고 르완다는 76.8%에 이른다. 또한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00~2010년 평균 남아프리카공화국 67.4, 코모로스 64.3, 르완다 53.1, 잠비아 50.7이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아프리카가 여전히 빈곤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III. 빈곤과 불평등의 지정학적 요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기후 및 지리와 같은 지정학적인 요소와 식민지 유산이 지적되곤 한다. 기후 및 지리적인 요인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기후상 아프리카에는 열대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많은데, 열대지역은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생태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말라리아가 창궐하기에 적합한 강수량과 온도를 가지고 있다 (Sachs, 2005: 58). 말라리아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실제로 열대농업은 온대농업에 비해 30~50%의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Gallup et al., 1999: 197). 또한, 열대 지역과 비열대 지역의 1인당 평균 GDP는 2.7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Gallup et al., 1999: 181).

한편, 지리적으로 내륙(land-locked)에 사는 인구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빈곤하다고 알려져 있다. 콜리어와 오코넬(Collier and O'Connell, 2008: 84)의 논리에 따르면, 해안에 위치해 있을수록 그 국가의 불평등과 빈곤율의 정도는 낮아진다. 이는 내륙국가의 경우 해안국가 보다 이웃 국가의 경제발전이 확산(spill-over)되기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1990년대 전체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85%가 해안지역에 살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35%만이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내륙 국가인가 혹은 해안 국가인가에 따라 성장률에 차이를 보인다. 1961~2000년 기간 동안 전체 아프리카의 연평균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은 0.67%이었지만, 해안 국가는 0.89%, 내륙 국가는 0.31%였다(Ndulu and O'Connell, 2008: 10). 그러므로 내륙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Collier and O'Connell, 2008).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내륙국가와 다른 지역의 내륙국가와의 차이도 존재한다. 내륙 국가는 인접국가가 1% 성장하면 평균적으로 그 성장의 0.4% 정도가 이웃 국가로 확산된다. 그러나 비(非)아프리카

내륙 국가의 경우 확산비율이 0.7%인데 반해, 아프리카 내륙 국가는 0.2%에 불과하다(Collier, 2007: 58).

그러나 아프리카라 하더라도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그 예외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61~2000년 기간 아프리카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연평균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은 0.83%였다. 이는 해안국가보다 조금 낮고, 내륙 국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원 풍요국들의 경우도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기록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원료의 수출로 들어오는 수입의 80%를 전체 인구의 1%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Bigman, 2011: 206).

이러한 지정학적인 한계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과거 식민지 경험 역시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아프리카는 과거 서구 제국들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노예무역에서 노예를 공급해주던 지역이었다. 식민지 시기의 발전은 식민지 모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자원이 약탈당하고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비할 수 없었다. 또한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이 늦었다는 점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성장을 위한 출발점에 뒤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발전도상국들의 경우 1830년에 약 25%가 독립을 이룩한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1960년에 와서야 25%의 국가가 독립했다. 1946년에는 발전도상국들의 50%가 독립한 데 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1년이 되어야 50%가 독립할 수 있었다. 1981년에는 다른 지역 발전도상국들이 모두 독립할 수 있었던데 반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두 독립할 수 있던 시기는 1993년이었다(Ndulu and O'Connell, 2008: 6). 이러한 식민지 경험과 늦은 해방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현재 불평등과 빈곤의 핵심적인 원인이 지정학적 요인이나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열대지역에 위치한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결정론적이다. 즉,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자연지리적 요인은 변화시킬 수 없고, 식민지배의 경험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아프

리카의 불평등과 빈곤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결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아프리카도 성장과 불평등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때가 있었다. 1인당 실질 GDP(PPP 1990년 달러 가격) 성장률로 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1820~1870년 기간 동안 0.2%인데 반해, 남미,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등 다른 지역들은 0.1%이었다. 한편, 1870~1913년 기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0.2%, 다른 지역은 0.7%의 성장률을 각각 보인 반면, 1913~1950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1.1%, 다른 지역은 0.5%였다. 하지만 1950~2000년 다른 지역이 3%의 성장률을 보인데 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0.7%에 머물렀다(Ndulu and O'Connell, 2008: 16). 이러한 수치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저성장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불평등과 관련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토지 불평등(land inequality)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남미의 경우 역사적으로 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고착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토지의 불평등이 지적되곤 한다(Frankema, 2009: 40).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토지의 불평등이 남미뿐 아니라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UNDP, 2012: 48). <표 3>의 토지 지니 계수를 보면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이 0.75, 남미 0.9, 남아시아 0.54, 동아시아 0.5,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0.7, 유럽 0.6, 미국 0.78인데 반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0.49에 불과했다(Eastwood et al., 2010: 3330).

이외에도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 젊은 노동 인구가 많다는 점도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이룬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빈곤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으로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표 3〉 토지 지니 계수

지역	토지 지니 계수
사하라남부 아프리카	0.49
중남미 및 카리브해	0.75
남미	0.90
남아시아	0.54
동아시아	0.50
동남아시아	0.60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0.70
유럽	0.60
미국	0.78

자료: Eastwood et al.(2010: 3330).

IV. 빈곤과 불평등의 사회적 원인: 종족 분절성

지정학적인 요소 외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극심한 종족 분절 현황을 지적한다. 이러한 종족 분절성(ethnic fractionalization)이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종족 집단이 다양하면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증가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igman,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7년까지 발생했던 세계 124개 내전 중 64%가 종족이나 종교적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다(Oberschall, 2007: 2).

사실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는 종족보다는 부족(tribe)의 개념이 더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부족은 주요 사회경제조직 형태가 아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목민인 마사이(Maasai), 삼부루(Samburu), 투르카나(Turkana) 등과 같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부족이 있지만 이들은 주요 경제사회조직이 아니다 (Shoup 2011, xvi). 이것이 부족이라는 개념보다 종족이라는 개념이 아프리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더 주요한 단위로 이해되는 이유이다. 〈표 4〉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종족 집단의 구성을 보여준다.

한편 국가별 종족 다양성을 나타내는 종족집단 분절성 지수에 의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종족 분절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사하라남부 아프리카의 종족집단 구성

국가	종족 집단의 구성
가나	3개 주요 부족(Fanti, Ashanti, Ewe)과 많은 소수부족
가봉	4개 주요 반투(Bantu) 부족 집단 4개 다른 주요 부족들
감비아	말린키(Malinki) 41%, 푸라니(Fulani) 14%, 워로프(Wolof) 12%
나이지리아	200여 개 부족, 하우스푸라니(Hausa-Fulani) 29%, 요루바(Yoruba) 21%, 이보(Ibo) 18%
남아공	아프리카인 75.2%, 백인 13.6%, 아시아인 2.6%, 혼혈 8.6%
라이베리아	아프리카원주민부족 95%; 6개 주요 부족집단
르완다	후투(Hutu) 84%, 투치(Tutsi) 15%, 트와(Twa) 1%
부룬디	후투(Hutu) 86%, 투치(Tutsi) 13%, 트와(Twa) 1%
우간다	바간다(Baganda) 17%, 안코레(Ankole) 8%, 바소가(Basoga) 8%, 이테소(Iteso) 8%, 바키가(Bakiga) 7%, 랑기(Langi) 등 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80여 종족, 가장 큰 종족은 반다(Banda) 32%
차드	240부족; 12개 부족이 광범한 부족 집단
카메룬	200여 부족 가장 큰 부족집단은 인구의 31%
콩고(민주공화국)	200여 종족집단; 4개 대규모집단이 인구의 약 45%
콩고(브라자벨)	콩고인(Kongo) 48%, 상가(Sangha) 20%, 므보치(M'Bochi) 12%, 테케(Teke) 17%
코트디부아르	7개 주요 종족집단; 인구의 15% 이상 되는 부족 없음
탄자니아	100여 개 부족; 아프리카 원주민 97%

자료: Rudolph (2006: 166).

〈표 5〉는 다양한 종족집단 분절성 지표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저발전 국가 별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종족집단 분절성 지수는 비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모든 저발전 국가들보다도 분절성 지수가 상당히 높다. 아프리카 내에서 종족 분절성 측정 지수인 ELP 지수와 PREG 지수에서 모두 분절성 지수가 높은 국가는 자이레(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차드, 나이지리아, 우간다,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등이다. 분절성이 낮은 국가는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이다(Posner, 2004: 857).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종족 분절성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사회계급으로 초래되는 갈등을

〈표 5〉 지역별 종족집단 분절성 지수

	PREG	ELF	Alesina et al.	Fearon	Roeder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38	0.65	0.66	0.71	0.68
모든 비(非)아프리카 국가	n/a	0.29	0.37	0.39	0.24
모든 저발전 국가	n/a	0.46	0.40	0.54	0.53

자료: Posner(2004: 857).

견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종족 분절성이 높아 오히려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순보호 효과(net protective effect)”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Ndulu and O’Connell, 2008: 59). 그 이유로는 첫째, 분절성 그 자체의 효과이다. 종족 분절성이 높아 사회 내 종족의 구성이 다양하면 할수록 어느 한 종족 집단이 내전 등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콜리어와 호퍼(Collier and Hoeffler, 2004: 588)는 불평등, 정치적 권력, 종족 양극화, 종교적 분절성 등은 내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단지 종족지배(ethnic dominance), 즉 한 종족 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소수라도 다른 종족들을 지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종족과 종교가 다양한 사회에서 다수 종족집단의 지배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질적 사회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종족 다양성이 불만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갈등의 비용을 더 높이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종족 간 평형견제(ethnic counterbalance)’는 종족 간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탈식민지 국가에서 나타나는 종족 다원주의(ethnic pluralism)의 특정한 하나의 형태이다(Shoup, 2008: 18).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특정 그룹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족 집단들이 서로 다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세계에서 종족 간 평형견제의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정치적 지배그룹은 흑인 남아공인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백인 남아공인들이 지배적인 집단이었다. 케냐의 경우에도 키쿠유족이 정치지배집단이었다면 경제적 지배집단은 인도인이었다. 짐바브웨에서는 쇼나족이 정치지배집단이었는데 반해 백인 짐바브웨인들이 경제적 지배집단이었다. 1971년 이전의 우간다에서는 전통적으로 바간다족이 정치

적 지배집단인데 반해 인도인들이 경제적 지배집단이었다(Shoup, 2008: 17).

셋째, ‘포괄의 역설(paradox of inclusiveness)’이다. 종족들은 동일하면서도 서로 다르기를 바란다. 따라서 종족이 다양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귀속(attachment)하고 이탈(differentiation)하느냐의 갈등이 있다. 분열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에 기반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하려 한다(Ross, 2007: 319). 이러한 행태는 정부와 집권당이 지배적일수록 종족 집단은 집권당을 위해 하나의 종족이 집단적으로 투표하는 종족 블록투표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어떤 지역적, 정치경제적 또는 문화적 불만 때문이라기 보다는 집권당과 종족의 후원-수혜관계(patronage)가 집단적으로 블록투표를 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족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집단행태를 조직화하는 “전략적 자원”이다(Ishiyama, 2012: 782).

그러나 종족 집단은 일반적으로 ‘연대감(solidarity)’과 ‘우리라는 감정(we-feeling)’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Oberschall, 2007: 3).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종족다민족국가들에서 종족을 단위로 한 집단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현황은 어떠한가? <표 6>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살고 있는 개개인이 종족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우선시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국민과 종족집단의 정체성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종족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약 11%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종족 집단 및 국민으로 모두 인정하는 응답이 42%였으며, 국민 정체성으로만 생각하는 응답은 48%에 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 종족집단 정체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정체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아프리카의 종족 분절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족 문제가 이 지역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은 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분절성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급균열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은 종족정체성보다 국가정체성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

〈표 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종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

정체성	빈도	퍼센트(%)
종족 정체성만	1,536	4
종족 정체성 > 국민 정체성	2,715	7
종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 같음	16,858	42
국민 정체성 > 종족 정체성	3,550	9
국민 정체성만	15,658	39
계	40,319	100

자료: Afrobarometer 2010-2012, online analysis. 31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과 종족 집단 사이에 정체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서 종족집단의 종족 분절성이 아프리카의 불평등과 빈곤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V. 빈곤과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

1.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으로서는 내전

많은 학자들이 지정학적인 요인과 종족 분절성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 원인은 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불평등과 빈곤은 빈번한 내전의 발발과 관련성이 있다. 1980년대 이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70%가 적어도 1년간의 무력충돌을 경험했다. 대표적으로는 에티오피아 기근으로 인한 무력충돌, 르완다 학살, 시에라리온의 유혈사태가 있다(Miguel, 2009: 7-32). 이러한 내전이 발생하면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불평등과 빈곤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콜리어에 의하면 저소득 국가들은 5년마다 14%의 내전 위협에 직면한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가 3% 성장하면 내전의 위협은 14%에서 11%로 줄어드는 반면, 경제가

3% 하락하면 16%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Collier, 2007: 20). 내전은 성장률을 매년 2.3%씩 낮추기 때문에 7년간의 내전은 그 이전에 비해 약 15% 포인트의 성장감소로 이어진다(Collier, 2007: 27). 콜리어에 따르면, 내전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데, 즉 내전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임박해진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등 자본 이탈 및 투자 감소 현상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내전의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종족 분절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콜리어(Collier)는 『하층 10억 명(The Bottom Billion)』이라는 저서에서 아프리카에 종족 집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전이 빈발한다는 ‘아프리카 효과(Africa effect)’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콜리어는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나 내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족 분절성 때문이 아니라 빈곤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내전이 종족 분류에 기초하고 있다는 논리에 반박한다(Collier, 2007: 36). 르완다나 브룬디처럼 소수 종족(투치족)이 수적으로 다수인 종족(후투족)을 지배하는 현상이 존재할 경우는 내전의 위험이 있지만, 통계상 아프리카에는 종족 다양성과 내전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Collier, 2007: 2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종족으로 인한 차별이나 자신이 속한 종족의 경제상황, 정치적 영향력은 다른 종족집단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스비(Østby, 2008: 141)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집단 간의 수평적 불균형(horizontal inequality)이 증가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그는 지역적 자산의 수평적 불평등과 특정 소수 집단의 정치적 배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은 종족 차원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7>은 아프로바로미터(2008~2009) 자료의 “응답자 종족의 경제상황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좋습니까?”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응답자의 종족이 다른 집단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덜 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경제 상황이 다른 종족집단에 비해 똑같다는

〈표 7〉 종족 집단의 경제상황과 정치적 영향력 인식(%)

	종족집단의 경제상황	종족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매우 향상됨	4	8
다소 향상됨	16	13
똑같음	44	42
다소 감소됨	21	22
훨씬 감소됨	10	9
무응답/DK	5	5
계	100 (N=26,699)	100 (N=25,950)

자료: Afrobarometer 2008-2009. 아프리카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이 44%, 정치적 영향력이 똑같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하였다. 경제상황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응답이 31%, 정치적 영향력이 나쁘다는 응답이 31%였고 좋다는 응답도 각각 20%, 21%였다. 아울러 아프리카미터(2010~2012)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종족이 정부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가 59%를 차지한다. 자주 또는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은 19%였다.

따라서 내전의 원인으로 종족 분절성을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이러한 무력충돌이 지배그룹의 탐욕(greed)과 피지배그룹의 빈곤과 이로 인한 불만(grievance) 혹은 상대적 박탈감이 연관된 것으로 본다(Collier and Hoeffler, 2004; Gurr, 1993). 빅맨은 『아프리카에서의 빈곤, 기아와 민주주의(Poverty, Hunger, and Democracy in Africa)』에서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차별과 배제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거(Gurr)도 ‘정치화된 인종그룹(ethnopolitical groups)’이 폭력시위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역사적이나 현존하는 중앙정부나 지배그룹의 차별정책이나 억압을 꼽는다(Gurr, 1993: 2000). 각 설명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내전의 정치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치적 관리의 실패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내전이 발발하고, 그 내전의 결과 빈곤과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해법은 소수가 차별받지 않도록

소수의 이익도 포함(inclusion)하는 정치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즉, 정치체제가 다원적이거나 여러 종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적(accommodative)일 경우 종족분절성이 심각한 국가라 하더라도 사회갈등이나 폭력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적다(Gurr, 2000). 일반적으로 포괄적인(inclusive) 체제일수록 불평등이 개선되고, 배제적인(exclusive) 체제일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 배제적 체제인 일당독재나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의 재분배 정책 요구에 대한 반응이 낮아 불평등의 수준이 높은 반면, 포괄적 체제인 다당제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의 정치참여와 재분배 정책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여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이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그렇다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정치제도는 어떠한가?

2. 신생 민주주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정치제도

레이파르트(Lijphart)는 분열된 사회(divided society)에서는 ‘협의회적 민주주의 (consociational democracy)’가 바람직하며, 이는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권력공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Lijphart, 2004: 96-97). 여기서 분열된 사회란 지배집단과 소수 종족집단과의 관계가 협동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사회로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또한 이에 포함된다(Oberschall, 2007: 1).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은 권력 공유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갈등이 발발이나 악화하거나 재현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거(Gurr)는 냉전종식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던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민족국가의 인종 분쟁이나 내전이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줄어든 이유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권력 공유의 특징을 지닌 다원민주적 정치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Gurr, 2000).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이후 1960~2008년 시기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15명의 지도자들이 군사쿠데타로 물러났고, 2/3가 죽거나 수감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은 권력투쟁으로 이어져 정치가 불안해졌고,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Bigman, 2011: 176). 그러나 그

이후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25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보츠와나, 세네갈, 모리셔스 3개국뿐이었다. 하지만, 2005년 기준, 아프리카의 40개국 이상이 정기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Bigman, 2011: 172). 또한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당제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1989년 아프리카 29개국이 일당제 국가였는데 반해 1994년에는 대다수가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였다(Southall, 2003: 1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정치제도는 대부분 이와 같이 권력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다당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공유 협정들은 레이파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주적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비민주적인 의미의 권력공유로 타락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제도적 포괄성(inclusion)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집단의 참여를 항상 보장하는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협의제적 권력공유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Spears, 2013: 4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지역의 권력공유 협정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쉽게 연합정권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일당제로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다당제는 선거를 이용하여 소수 엘리트들이 관직을 공유 배분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정치인들은 잦은 정당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연합정권을 구성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나이지리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에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비민주적인 권력 공유 현상은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우와 같이 종족적, 지역적 색채를 띠는 문화적으로 분리된 사회에서는 정당이 연합을 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단일정당체제라 하더라도 사회균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종족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Oyugi, 2006: 5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비민주적인 권력공유 협정은 주로 엘리트들 간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LeVan, 2011: 42). 이러한 권력공유협정은 단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간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발생하고, 비민주적인 정치공학 적 계산이 개입된다. 대표적으로 시에라리온의 로메(Lome) 평화 협정은 혁명 통일전선(Revolutionary United Front)을 포함시켰지만 그 대가로 산코(Foday Sankoh)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데 합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소말리아의 2008년 지부티 협정(Djibouti agreement)은 타협이라기보다는 반대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Spears 2013, 47). 게다가 정당 성이 결여된 임시방편적인 권력공유 협정은 작은 선거불복의 사태를 초래하고, 이는 선거가 끝난 후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권력공유 협정은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폭력적 갈등을 피하게 만들어 주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선거와 다양한 민주주의의 역전현상에 대해 민주적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Cole, 2013: 263), 결국 이를 통해 나타나는 부패와 지대추구 현상은 보편적인 국민을 위한 빈곤과 불평등 관리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 결과 내전의 발발이 빈번해지며,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신생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행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거의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41%(수요 86%, 공급 45%), 의회의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23%(수요 69%, 공급 46%), 대통령제의 수요대비 공급부족 28%(수요 71%, 공급 43%), 그리고 정당의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50%(수요 70%, 공급 20%)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정당과 선거의 경우 가장 수급의 문제가 많았다(Bratton, 2012: 12). 이는 아프리카의 정치인들이 자국민이 원하는 민주제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정부관리에 대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의 평가 또한 부정적이다. 관련된 문항으로 아프로바로미터(2010~2012)는 “현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 향상, 빈부격차 완화, 공동체 간 폭력적 갈등 해결)를 얼마나 잘 또는 잘못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가?”의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시행

〈표 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평가	빈곤층 생활수준 향상	빈부격차 완화	공동체 간의 폭력적 갈등 해결
매우 잘못함	36	44	16
대체로 잘못함	34	35	23
대체로 잘함	26	18	46
매우 잘함	4	3	15
계	100	100	100

자료: Afrobarometer 2010-2012. N=43,20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한 바 있다. 결과인 〈표 8〉에 의하면 정부가 공동체 간 폭력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잘하고 있다는 아프리카인들의 응답은 61%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해 빈곤퇴치에 실패했다고 보는 응답은 70%, 빈부격차 해소에 실패했다고 보는 응답은 79%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 있어서 정부의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적인 요인을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사회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당경쟁이 폭력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아프로바로미터(2010~2012)의 조사에 의하면 짐바브웨의 88%, 시에라리온의 76%, 나이지리아의 65%, 케냐의 64%, 우간다 64%가 폭력갈등의 원인으로 정당경쟁을 지적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다당제와 같은 권력공유 협정은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Hyden, 2002: 147-148), 폭력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내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VI. 결론: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메커니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저개발, 사회갈등, 무력분쟁 등에 휩싸인 국

가들이 많고,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요인, 종족 분절성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전통적인 설명은 아프리카가 지금까지도 빈곤과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기후나 지리와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토지의 불평등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점, 또한 과거에는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때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높은 출산율로 인해 충분한 노동인구가 존재한다는 점이 빈곤과 불평등의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로 인해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같은 종족이 서로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생태적-인종적 불일치(eco-ethnic mismatch)현상이 사회갈등이나 분쟁의 원인으로 주목 받곤 했다(Lee, 1995). 그러나 종족 분절성은 아프리카의 폭력갈등이나 내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종족이 지배하는 영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종족 분절성이 이를 상호 견제하고 평형을 이루도록 작용하며, 아울러 종족의 다양성과 분절성이 내전을 치를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종족 집단들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내전 발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지정학적인 요인은 극복 가능한 것이며, 종족 분절성은 오히려 계급갈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이다. 그 운영과정에서의 미숙함이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검토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 말 이후 대부분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종족 분절성을 반영하여 다당제와 권력 공유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이 지역의 다당제와 권력공유협정은 종족 분절성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체제이다. 그

러나 이 지역의 다당제와 권력공유협정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연합정권의 형성, 지대추구, 일당제의 복귀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전의 관리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투고일자: 2014-01-16 심사일자: 2014-05-28 게재확정: 2014-06-02

참고문헌

- 박경덕. 2012. 『기회의 땅 아프리카가 부른다』.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소.
- 조원빈. 2013. 「다종족 사회에서 정치제도가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케냐의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권 3호. pp. 139-163.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 Afrobarometer. <http://www.afrobarometer.org/>(검색일 2013. 10. 1).
- Bigman, David. 2011. *Poverty, Hunger, and Democracy in Africa: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Democracy in Cementing Multiethnic Societies*. Palgrave: London.
- Bodenstein, Thilo. 2013. "Ethnicity and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nternational Investors: Survey Evidence from Sub-Saharan Africa." *Afrobarometer Working Papers*, no. 142.
- Bratton, Michael. 2012. "Trends in Popular Attitudes to Multiparty Democracy in Africa 2000-2012." *Afrobarometer Briefing Paper*, no. 105.
- Cole, Rowland J.V. 2013. "Power-sharing, Post-electoral Contestations and the Dismemberment of the Right to Democracy in Afric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17(2): 256-274.
- Collier, Paul. 2007. *The Bottom Billion: 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i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er, Paul and Anke Hoefler. 2004.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56: 563-595.
- Collier, Paul and Stephen A. O'Connell. 2008. "Opportunities and Choices." In Benno J. Ndulu, Stephen A. O'Connell, Robert H. Bates, Paul Collier and Chukwuma C. Solud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Growth in Africa*,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lani, Boniface, Robert Mattes, and Carolyn Logan. 2013. *After a Decade of Growth in Africa: Little Change in Poverty at the Grassroots*. Afrobarometer: Let the People Have a Say.

- Eastwood, Robert, Michael Lipton, and Andrew Newell. 2010. "Farm Size." In Prabhu L. Pingali and Robert E. Evenson (Eds.), *Handbook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4, Oxford: Elsevier.
- Frankema, Ewout. 2009. *Has Latin America always been Unequal?* Leiden: Brill.
- Gallup, John Luke, Alejandro Gaviria, and Eduardo Lora. 2003. *Is Geography Destiny? Lessons from Latin America*. Washingt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llup, John Luke, Jeffrey D. Sachs, and Andrew D. Mellinger. 1999. "Geography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2(2): 179-232.
- Gurr, Ted Robert. 1993. *Minorities at Risk: A Global View of Ethnopolitical Conflicts*. Washington D.C: USIP.
- Gurr, Ted Robert. 2000. *People versus States: Minorities at Risk in the New Century*. Washington D.C: USIP.
- Hope, Kempe Ronald. 2008. *Poverty, Livelihoods, and Governance in Africa: Fulfilling the Development Promise*. New York: Palgrave.
- Hyden, Goran. 2002. "Democratisation in Africa." In Ole Elgstrom and Goran Hyden (Eds.), *Development and Democracy*. London: Routledge.
- Ishiyama, John. 2012. "Explaining Ethnic Bloc Voting in Africa." *Democratization*, 19(4): 761-788.
- Lee, Shin-wa. 1995. "No Hope for Democracy? Emerging Threats to Democratization Processes," Sung Chul Yang (Ed.). *Democracy and Theory: Reality and the Future Communism*, Seoul: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e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Series No. 3.
- LeVan, A. Carl. 2011. "Power Sharing and Inclusive Politics in Africa's Uncertain Democracies." *Governance*, 24(1): 31-53.
- Lijphart, Arend. 2004. "Constitu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ies." *Journal of Democracy*, 15(2): 96-109.
- Miguel, Edward. 2009. *Africa's Turn?* Cambridge: The MIT Press.
- Ndulu, Benno J. and Stephen A. O'Connell. 2008. "Policy Plus: African Growth Performance, 1960-2000." In Benno J. Ndulu, Stephen A. O'Connell, Robert H. Bates, Paul Collier, and Chukwuma C. Solud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Growth in Africa*,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erschall, Anthony. 2007. *Conflict and Peace Building in Divided Societies: Responses to Ethnic Violence*. New York: Routledge.
- Østby, Gundrum. 2008. "Inequalities,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Civil Conflict: Evidence from 55 Developing Countries." In Frances Stewart (Ed.). *Horizontal Inequalities and Conflict: Understanding Group Violence in Multiethnic Societies*, New York: Palgrave.
- Oyugi, Walter O. 2006. "Coalition Politics and Coalition Governments in Africa."

-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4(1): 53-79.
- Posner, Daniel N. 2004. "Measuring Ethnic Fragmentation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4): 849-863.
- Ross, Marc Howard. 2007. *Cultural Contestation in Ethnic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dolph, Joseph. 2006. *Politics and Ethnicity: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Palgrave.
- Sachs, Jeffrey. 2005.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Press.
- Shoup, John A. 2011. *Ethnic Groups of Africa and the Middle East: an Encyclopedia*. Santa Barbara: ABC-CLIO.
- Shoup, Brian. 2008. *Conflict and Cooperation in Multi-ethnic States: Institutional Incentives, Myths, and Counter-balancing*. New York: Routledge.
- Southall, Roger. 2003. *Democracy in Africa: Moving Beyond a Difficult Legacy*. Cape Town: HSRC.
- Spears, Ian S. 2013. "Africa's Informal Power-Sharing and the Prospects for Peace." *Civil Wars*, 15(1): 37-53.
- UNDP. 2012. *Af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2012*. New York: UN Publications.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in Sub-Saharan Africa: Fragile Political Institutions in Nascent Democracy

Yang-ho Rhee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Shin-wha Lee

Professor, Korea University

Eunju Chi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various causes of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in Sub-Saharan Africa. This study evaluat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iterature, which mostly focuses on geo-politics and ethnic fractionalization as key causes of the region's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The findings of this paper demonstrate that protracted and violent civil wars have been primary causes of poverty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region. Civil wars have often been the result of failed political governance that was ascribed to unstable and fragile political systems of nascent democracy. Although most of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ve adopted a multi-party system, which includes all the parties involved, power-sharing in these countries has not been stable and has often become corrupted to non-transparent power coalition or one-party system. In addition, power-sharing has led to political chaos which results in the failure to manage poverty and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Keywords: Inequality, Poverty, Civil war, Power-sharing, Sub-Saharan Africa

이양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정경관 301호,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Tel_02-3290-1645 E-mail_rheeyaho@naver.com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정경관 429호
Tel_02-3290-2194 E-mail_swlee@korea.ac.kr

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정경관 301호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Tel_02-3290-1644 E-mail_chyole@korea.ac.kr